

어쩌면 다시는 못 가볼 그곳, 출판사

(글항아리를 다녀와서)

김유환

일려두기

- 보통 글을 쓸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글에는 '나'라는 단어 사용이 적합할 듯 싶어 사용했다.
- 주제가 넘어가는 첫 문장 '진하게'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글항아리에서부터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후덥지고 축축했던 장마로 시작해 장마를 끝으로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출판사의 인턴이 끝이 났다. 문학동네 산하의 출판사인 글항아리는 역사, 철학, 한문학을 비롯하여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의 교양서를 펴내는 출판사이다. 나를 제외, 대표와 편집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책을 출판해내고 있다.

사무실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근무했던 나는 자리만 좋았다면 한결 편했던 근무를 했을 것이다.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랄까 나중에 들어보니 직원 분들도 꺼렸던 자리였더라. 여하튼 나의 업무는 사실상 '없었다.' 물론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어야 했지만 그것은 '업무'라기 보단 '숙제'에 가까웠다. 솔직히 말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숙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벅찼다. 매일 다른 주제의 에세이 한편을 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써갈수록 고갈되는 주제와 매일 똑같은 글의 문체, 형편 없는 나의 문장력들은 나의 머리를 헤집어 놓으며 고민하게 만들었다. 편집장님께 매일 아침 에세이를 보여드리는 것 또한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글을 교정, 교열하는 사람에게 이런 형편없는 에세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업무 시간의 반을 글 쓰는 것에 쏟아부었다면 나머지 반은 책을 완독하는 것에 집중했다. 3일에 한 번, 한 권에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숙제'였다. 1년에 책한 권은 읽을까 말까 한 나에게 평균¹⁾ 250쪽짜리 책을 3일만에 다 읽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불가능은 없더라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 책에 손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3일동안 책을 읽고 서평 쓰기를 총 6번 반복했다. 그러니 매번 돌아오는 삼 일마다 나는 하루에 두 개의 글을 써야했던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은 고역이었다. 또한 비슷한 '숙제'에 반복으로 마지막 일주일엔 글 쓰는 것조차 지루해져 미치는 줄 알았다. 이곳에 와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오, 나는 아니구나. 다시는 오지 말자" 였으니 말 다했다. 글을 보는 당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거라 믿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외에 업무는 짧고 간결한 것들이었다.(3시간 동안 앉아 글을 쓰는 것에 비해) 매주 월요일마다 편집자와 모여 기획회의를 하였고 매주 월요일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읽었으며 업무가 없었던 초반에는 보도자료 따위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1) 평균을 딱히 계산해보지는 않음

인턴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학동네 직원은 전부 '하이웍스'라는 그룹웨어를 사용하는데 대충 출퇴근 기재와 문학동네 전체 공지 그리고 각 출판사 또는 부서의 소통으로 사용된다. 하이웍스의 자신 이름 뒤에는 직급이 기재되는데 내 이름 뒤에 인턴이라는 단어를 보곤 기분이 묘했었다. 물론 눈 씻고 찾아봐도 인턴은 나 말고 없었긴 했지만 나름 문학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슨 경험이 가장 신기하고 새로웠나 묻는다면 나는 고민 않고 출판된 책을 받아본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말만 들으면 '그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 곳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것이었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해보았던 많고 많은 새로운 경험들은 사실 조금의 공과 시간을 들이면 겪어볼 수 있으며 할 수 있었지만 출판된 책을 받아보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다.

아직 시중에 팔지도 않는 책을, 초판발행도 안된 책을 받아보는 일만큼 신기한 일은 없었다. 내가 근무할 때 동안은 총 세 가지 [여성의 수치심]과 [아무도 모르는 뉴욕] 그리고 [미쳐버린 배] 라는 책이 출판 됐는데 [여성의 수치심]은 초반에 읽다가 '미안하지만' 진짜 재미없어서 포기했고 [아무도 모르는 뉴욕]은 시도도 하기 전에 개인무빙이 끝났다. 또한 [미쳐버린 배]는 무빙이 끝나는 날 출판되었다. 그래도 주신 책인데 꼭 다 읽고 싶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출퇴근할 때면 머릿속이 감사로 가득 차있었다.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내가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출판 일이라는 것이 매우 바쁘고 항상 긴장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려고 노력하신 편집장님께 항상 감사했으며 아직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같이 밥 먹으러 같이 가주시고 나의 지루함과 피곤함을 걱정해주신 모든 직원분들에게도(직원 전부가 나에게 안 지루하냐고 물어봤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가는 마지막 날, 모든 짐을 다 집으로 보내고 크로스백만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예정이었지만 직원분 전부가 나에게 책을 이별 선물도 주는 바람에 편의점 택배로 택배를 한 번 더 붙였던 기억이 난다.

그 중에는 직접 쓰신 글도 있으며 내가 꼭 읽어보고 싶다고 한 책을 기억해주시고 선물로 주신 책도 있다. 그때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주시고 계셨던 것에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사를 전한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다 읽고 서평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서평은 무리일지 몰라도 주신 책들은 꼭 다 읽기로 약속했고 그럴 예정이다.

점심시간, 한 직원분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여기 와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게 뭐예요?" 난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아니구나!" 직원 모두가 웃었고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 쳐주었다.

사실 그것도 맞다. 난 편집자라는 업종에 맞지 않는 성격을 가졌고 거기에 맞는 적성이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얻었던 것이 참 많다. 인내심이란 것이 없던 나는 차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독서속도가 많이 늘었으며 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럽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글의 문체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귀한 것들을 얻고만 간다는 것이 참으로 염치없지만 여기서 얻었던 것들을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여 언젠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베풀고 싶었다. 그러기에 나는 개인무빙을

통해 얻을 것을 온전히 나를 성장 시키는 것에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항상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언젠간 각자의 위치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7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와 조선일보 북 코너 정독 - 글쓰기 - 편집장님과 면담 - 책 읽는 척 숙면 - 유튜브 1시간(?) - 회의 참석 - 회사 소개 받기 - 직원 분들과 인사 - 오늘 점심: 모밀소바 		
특이사항	알고 보니 식대 개이득		
소감	<p>뭐든 처음이라 함은 떨리기 마련이다. 이번 처음도 떨리는 마음과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공간의 공기, 분위기. 그리고 코끝으로 느껴지는 이 공간의 냄새 모든 게 다 새로웠다. 물론 새로운 공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롭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이지만 나는 이 새로운 느낌에 집중하기로 하였다.</p> <p>처음으로 받은 업무는 신문 북 코너 읽기였는데 평소에도 읽던 글을 여기 와서 읽으니 조금은 아니 많이 낫설었다. 나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애 먹은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미정 (매번 편집장님께서 업무를 넣어주실 예정)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8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보도 자료 읽기 - 보도 자료 읽은 거 느낌과 생각 적기 - 보도 자료 읽는 척 숙면 - 신발 보기 1시간(?) - 편집자님과 면담 - 오늘 점심; 분식 		
특이사항	커피는 식대 아닌데 자꾸만 사주심 개이득		
소감	<p>첫 출근 때보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냥 편하지는 않았다. 어제 퇴근할 때에는 다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다. 오늘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하기 시작했고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점차 적응하고 있는 내가 눈에 보여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p> <p>오늘도 업무를 받았다. 보도 자료 읽어보고 글 쓰기인데 보도 자료를 읽고 글을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민을 끝내지 못한 채 글을 쓰고 제출하였다. 많이 아쉽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보도 자료를 읽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많아 남았던 날이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까라면 까기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9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공부] 읽기 - 글쓰기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돼지고기 덮밥 		
특이사항	오늘도 커피 받아먹음 심지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까지		
소감	<p>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적응이 된 것 같은 이 공간. 무엇을 하더라도 이질감 없고 편안 하다. 다만 아직 직원분들은 조금 불편한 것 같다. 나이 차이가 한참 많이 나서 그런 것일까 아직 적응이 안 된다. 점심 식사도 같이하고 나름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불편하다. 언젠간 편해지겠지 하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p> <p>오늘은 책 한 권을 다 읽고 서평을 쓰라는 업무를 받았다. [미래공부] 라는 책인데 나름 책이 재미있어 술술 읽힌다. 내일이면 서평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p> <p>이제부터 매일 한 편의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나중에 글이 많아지면 엮어 책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오늘도 한 편 썼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쓰기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0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공부] 읽기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백반 		
특이사항	오늘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얻어 먹음		
소감	<p>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 뻔 했다. 8시에 일어나서 10분 만에 준비해서 망정이지 좀만 늦었으면 진짜 지각이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아침에는 졸리지가 않았다. 출근 후 두세 시간은 졸리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졸리지가 않았다. 상쾌한 기분으로 독서를 조금 하다가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직원 모두가 점심을 먹는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지만 점심은 맛있었다. 백반집이었는데 인스턴트 먹다가 밥이랑 반찬 먹으니까 눈물 날 뻔 했다. 우리 회사 직원분들 점심에 잔심암 점심을 다 먹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독서를 하려는데 크럼 크렁자 꺾 안 졸리게 이상했다. 아침에 안 졸리던 것이 이제 졸려 와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보고서를 에세이식으로 매일 써서 편집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란다. 이제 무슨 일이람..</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12시간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3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공부] 읽기 - 서평 작성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기획 회의 - 신문 읽기 - 표지 감리 - 오늘 점심: 피자 		
특이사항			
소감	<p>여유부리다가 지각할 뻔 했다. 평소에 준비 시간이 하도 안 가길래 차라리 여유 부리면서 느긋하게 준비해야지 하다 8시 버스 놓치고 8시 20분에 버스 타서 지각 할 뻔~</p> <p>매주 월요일은 기획 회의가 있다. 신입(?) 편집자 두 분이랑 편집장님이랑 같이 기획 회의를 하는데 나름 재밌다. 회의할 때면 나도 기획하고 싶어진다.</p> <p>또 매주 월요일은 한겨레와 조선일고 북코너도 읽는다. 이 북코너가 매주 토요일 나오는 것 같은데 출근하면 면담하고 신문을 같이 주신다.</p> <p>편집장님께서 이제부터 계속 서평을 쓰라고 하셨다. 책 - 서평 - 책 - 서평 - 책 - 서평 이제부터 이게 내 일이다.</p> <p>미래 공부를 완독하고 서평을 쓰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오늘은 초과근무를 했다 ㅋ 8시 30분에 퇴근 했나</p> <p>그리고 오늘 피자데이라나 뭐라나 해서 옆 출판사 교육서가랑 같이 피자를 먹었는데 어색해 죽을 뻔 했다. 근데 교육서가 마케터분 레전드 마모 그리고 하와이안 피자 가지고 싸우시던데 ㅋㅋ 초당? 살짝 우리 학교 보는 기분? 동질감 느껴지더라~</p> <p>그리고 오후에는 감리도 보러갔는데 인쇄소가 생각보다 많이 커서 놀랐다. 오색기를 사용하던데 생각해보면 파주 출판 도시에 그만한 인쇄소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오고가는데 비가 진짜 많이 내려서 바지다 다 젖었었다. 너무 타옴아어?</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4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직업] 읽기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천천히 (한식집) 		
특이사항	허쉬 아이스크림 맛있다~		
소감	<p>생각보다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그것도 30분이나 일찍 분명 평소와 같은 시각의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도대체 왜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30분 일찍 도착해 잠도 깨고 양치도 느긋하게 할 수 있었다.</p> <p>오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보냈고 오후에는 학교 일을 조금 했다. 독서 동아리 강사님이랑 컨택하고 슬아쌤이랑 전화통화하고 그러다보니 4시쯤 돼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 보고서에 쓸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주제가 없다 크래도 역자로라도 쓰건 쓰자만^ㅜ</p> <p>점심은 윤이님과 지호님이랑 한식당을 가서 먹었는데 되게 어색할 줄 알았지만 나름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어서 놀랐다. 이제 서로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 나만의 기분(?) 그리고 아직 화요일인 거 개오바</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5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직업] 읽기 - [읽는 직업] 서평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능이 백숙 		
특이사항			
소감	<p>진짜 '지각'을 해버렸다. 분명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어제는 30분 일찍 도착하고 오늘은 30분 늦게 도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만 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왔는데 분명 아침에 집에서 나왔을 때는 안 오더니 버스 타니까 오더라</p> <p>오늘은 하루 종일 읽고 쓰기만 했다. 사실 오늘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왔었다. 근데 갑자기 백숙을 먹자면서 예약을 했다는 거다! 아니 예약했으면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가서 맛있게 먹긴 했다. 오후에는 서평을 썼는데 너무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이번 서평은 편집장님 책으로 서평을 쓰는 거라 긴장 타야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 그래도 귀찮으니까 퇴고는 안할 거야~</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6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찰지능] 읽기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통삼겹 김치찌개 		
특이사항			
소감	<p>통찰지능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보다 날씨가 좋아서 졸리지 않았다. 그리고 책이 재밌는 건지 나의 집중도가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이 술술 읽기더라.</p> <p>읽는 직업이라는 책에서 악취라는 책 내용을 설명하는데 재밌어 보이길래 출고증 써서 출고 받았다. 통찰 지능 다음에 읽을 책이다.</p> <p>점심으로는 김치찌개 먹었는데 맛이 괜찮았다. 뭐 김치찌개가 거기서 거기지만 맛있게 먹은 듯</p> <p>오후에 보고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편집장님이 문학동네 잡지? 특집? 같은 책을 주면서 심심할 때 읽으라고 하셨다.</p> <p>출판사 오고 나서 좋은 점은 비싼 책도 내가 읽고 싶으면 공짜라는 점이다. 아거 다 중고로 팔면 얼마야!!^^ 그래서 가지 전에 읽고 싶은 책 목록 적어다가 왕창 출고 해야겠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17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찰지능] 읽기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미역국 정찬 		
특이사항			
소감	<p>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진짜 하루 종일 잘 거다. 모든 회사원이 항상 금요일 날 할 거 있는데 칼퇴하는 그 심정을 알겠다. 사실 서평 다 못 썼는데 그냥 갈 거다 왜? 금요일이니까. 집 가서 잘 거다 진짜 오늘 다 너무 귀찮아. 일지도 안 쓰고 싶다. 오늘 점심 맛있더라 대표님이 나 많이 먹는다고 공기밥 두 개 시켜주심 사실 그렇게 못 먹는데 ㅋㅋ,, 오늘 nba 경기 결과 새벽에 보려고 발악을 했다. 아직 못 봤는데 예감이 좋지는 않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0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찰지능] 읽기 - [통찰지능] 서평 작성 - [악취] 읽기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희석쌤 방문 - 오늘 점심: 친환경 분식집(?) 		
특이사항			
소감	<p>지각했다. 그것도 9분이나 월요일이라 그런가 너무 피곤했다. 점심 시간만 기다린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서평도 쓰고 책도 읽고 열심히 하기 했지만 뭔가 계속 졸리고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다. 점심으로 완이네 분식집인가 뭔갈 갔는데 학교에서 밥 먹는 느낌이었다. 현미유 쓰고 라면도 감자라면에다가 김밥도 버섯 김밥? 이런 거라서 근데 사실 그리워서 다 먹었다. 오후에는 너무 졸리길래 잠깐 눈을 붙였다. 한 10분 붙이고 다시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기획회의는 오후에 진행됐다. 기획회의는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항상 새롭다. 편집자님들이 낸 기획이 책으로 출판 되면 신기할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1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읽기 - [악취] 서평 작성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소불고기 덮밥 		
특이사항			
소감	<p>이제 매번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라 쓸 말이 없다.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뭔가 특별한 일이라면 아직 출간 되지도 않은 책을 받았다. 되게 신기했다. 아직 알라딘, 교보문고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은 책이 내 손에 있다는 게 출판사가 아니라 도서관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쪽에 출판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켰주었다. 팔아 볼까 생각도 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것을 알고 포기했다.</p> <p>소불고기 덮밥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다. 근데 양이 적어 살짝 아쉬웠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2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수치심] 읽기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김치찌개 돈까스 		
특이사항	자고싶다.		
소감	<p>앉아있는데 다리 아프다. 망했다. 병원을 가야하나 그리고 이걸 외람된 말이지만 책(여성의 수치심) 진짜 재미없다. 주말이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다. 딱히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굳이굳이 만들자면 점심으로 김치찌개 돈까스를 시켰는데 나는 해봤자 국물 많은 김치나베인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찌개에 돈까스를 넣은 것이었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사실 얼마 안남았다. 이게 무슨 일지인가 싶지만 뭐 다 그런거지 ㅋㅋ 내일 또 보자 ^^</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3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읽기 - 보고서 작성 - 편집장님과 면담 - 오늘 점심: 완이네 분식집(?) 		
특이사항			
소감	<p>,비가 진짜 많이 왔고 지금도 온다. 점심 먹으러 갔다가 신발 양발 바지 다 젖었다. 내 생각에는 비가 나 나가면 일부러 오는 것 같다. 진짜 화가 난다. 일단 축축하고 습하고 우울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 밥 그냥 먹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든다.</p> <p>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재미더럽게 없을 줄 알았는데 조성진, 손열음, 백건우, 안드레아스 솔 등등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나와서 나름 재밌게 읽고 있다. 아 내일이면 금요일~얼른 내일이 되렴.</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4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읽기 -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서평 작성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돼지고기 		
특이사항			
소감	<p>일단 점심이 레전드였다. 애초에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 전부 다 가는 회식으로 돼지고기 집을 갔는데 진심 오랜만에 먹는 거라 그런가 개 맛있었다. 또 먹고싶다. 그리고 이건 좀 티엠아이인데 어제 집 가는 길에 드뷔시 아라베스트 1번이랑 베르가마스트 모음곡 들었는데 진심 지리더라 원래 드뷔시 잘 안 듣는데 비오는 날 꼭 들어봐라 다들 '달빛이 레전드예요 쇼팽 녹턴 2번도 꼭 같이 들으시길~'</p> <p>요즘 진짜 졸리다 계속 졸았다 깼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 새벽까지 놀고 늦게 일어나야지 행복하다. 얼른 퇴근 사실 이제 여기 조금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끝나는데 나만 일주일 더 남았다. 농구도 하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싶다 ㄴ</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하루종일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7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수치심] 읽기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피자 		
특이사항			
소감	<p>편집장님이 지방회의를 가셔서 면담도 안 하고 신문도 못 받았다. 기획 회의도 안 하니 책이랑 글 쓰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계속 책만 봤던 것 같다.</p> <p>피자 사실 안 좋아하는데 자꾸 피자 파티를 한다. 그래도 주시는 거 감사히 먹고 있다.. ㅏ</p> <p>이제 보고서에 쓸 주제가 다 떨어졌다. 진짜 생각이 안 난다. 나도 뭐라도 길게 적고 싶은데 주제자체가 없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니까 글 쓰는게 더럽게 재미없더라 그래도 열심히 일주일만 참자~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8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연구] 읽기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덮밥, 마라탕 		
특이사항			
소감	<p>일단 점심이 레전드였다. 오늘도 편집장님께서 지방회의에 가셔서 없는 관계로 또 파티(항상 파티라고 하더라)로 덮밥이랑 마라탕을 먹었는데 레전드 맛있었다. 마라탕을 너무 많이 시켜 한 통이 남았는데 내게 가지고 가라고 하셔서 넵죽 받아왔다.</p> <p>이번 보고서가 가장 어려웠다. 책 한 시간 읽었나? 하루 종일 그것만 붙잡고 해석하고 글 쓴 것 같다.</p> <p>이제 매일 글 쓰니까 글 솜씨도 늘기는 느는데 쓸 것이 없다. 뭐든 서평도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보고서도 그렇고 일지 조차 매번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 이제 글 쓰는 것도 지겹다. 빨리 집 가서 쉬고 싶다! ㄸ</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29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연구] 읽기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돈까스모밀정식 		
특이사항			
소감	<p>별써 수요일,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날씨가 너무 별로라서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들었던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쉬운 것 같기도~ 라고 할 뻔 감정 수업을 읽고 있는데 책이 생각보다 길어서 내일까지 읽고 독후감 써야할 것 같다. 아마 마지막 독후감이 될 듯 하다. 그리고 내일은 짐을 싸서 보내야 해서 점심 먹고 퇴근이다. 그러니까 반차를 쓰는 느낌? ㅋ</p> <p>오후에는 기획 회의를 했는데 이번 기획 회의는 편집자 다 같이 모여 하는 회의여서 생각보다 길게 했다. 1시간 30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데 나름 재밌고 유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의에 집중했다. 자 이제 퇴근하자 ~ ^^</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6월 30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연구] 읽기 - [감정연구] 서평작성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완이네 작은 밥상 		
특이사항			
소감	<p>2시에 퇴근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자마자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서야 다 읽은 감정 수업을 오늘 아침에 서평을 쓰려니 너무 하기 싫었지만 택배를 안 보내면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썼다.</p> <p>점심은 완이네 작은 밥상을 갔다. 여기를 가장 많이 간 것 같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비빔밥을 시켜 먹었는데 나름 괜찮아서 기분이 좋았다. 일찍 퇴근해서 사실 쓸 말이 별로 없다. 그냥 내일 보자 ^^</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서평 작성, 보고서 작성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숙면		
기타			

이름	김유환	날짜	7월 1일
장소	문학동네 1층(글항아리)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오늘 점심: 515 오리지널 		
특이사항			
소감	<p>마지막 날, 훌가분한 기분으로 퇴근했다. 사실 아쉽다. 끝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라니 매일 아침 버스타고 매일 아침 같은 분과 인사하며 커피 마시고 점심 같이 먹으며 저녁을 보고서로 마무리 하는 나의 일상이 이제 끝이라니 한달이 정말 빨라서 놀랐다.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겨두고 이제 떠나려고 한다.</p> <p>마지막이라서 다들 책을 정말 많이 주셨다. 사실 짐이 많아져서 걱정이긴 하지만 감사하게 주신 책들 다 읽어보려고 한다.</p> <p>마지막이라서 다 같이 카페도 갔다. 이제 서로가 너무 편해서인지 장난도 막 치고 서로서로 개그도 치며 여기서 놀았던 것중에 가장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10살 차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이제는 같은 직원이 된 것 같았다.</p> <p>점심으로 블루 리본을 받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가격도 비싸고 고급져서 부담스러웠지만 개 미친 맛있어서 기절할 뻔 했다.</p> <p>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항상 아직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몸 건강 잘 살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다들 감사했습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